

제 12 회 중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705

한글 성명: 김혜진

젊은 을 빛시다
나는 홀로 거니는 것을 좋아한다.
쉼 없이 달리던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
행여나 놓쳐버렸을 수도 있는 소중한
우연가를 다시금 들이켜 볼 수 있는 시
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.
어느 화창한 봄날, 거리에는 수많은
사람들로 북적거렸다. 그때, 유달리 내
눈에 띈 장면이 있었다. 언뜻 보기에도
스물두셋 정도 돼 보이는 남녀가 등에
큰 가방을 메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
있었다.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지나
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도 그 나이대
가 되어보니 많은 생각에 잠겼다.
20대,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
누릴 수 있는 나이대는 아니다. 나처럼
부모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감사히 공부
할 수 있고 청춘을 즐길 수 있는 사
람이 있는 반면 일찍 시집 장가가서
자식을 위해 스스로의 젊음을 까지 다 바

총 3 장 중 1 번째 페이지

성균관대학교



扫描全能王 创建

제 12 회 중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705

한글 성명: 김혜진

치고 한평생 누침이라는 것을 모르고
지낸 사람들은 있다. 가장 가까이에서
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정작 그 사람
에 대한 고마운은 표현할 줄 모르는
무뚝뚝한 딸임에도 한없이 사랑해 주시
는 부모님이 바로 자식들에게 '젊음
을 빼앗긴 사람들'이다. 고로 우린 그
들에게 젊음을 뺏진 것이다.

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젊음을 즐길
거를도 없이 시집 장가드는 게 보편적
이긴 했다. 그러나 세상만사 당연하다고
치부될 수 있는 건 없다. 그들이 스스
로의 젊음을 대신 나라는 생명체를 이
세상에 버여 주셨다는 자체가 딸인 나
로서는 나 스스로의 젊은 역량을 최대
화시켜 그들께 뺏진 젊음을까지 도로 되
찾아 드리고 싶은 크나큰 동력이 된다.

내 나이 스물셋, 한창 꽃다운 나이
에 부모님께 뺏겼다는 얘기를 하면 아
마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못 받을지도



제 12 회 중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 - CNS 0705

한글 성명: 김혜진

모르겠다. 하지만 내 나이대의 많은 친구들도 한 번 가슴에 솟을 염고 곰곰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
어릴 때 부모님이 참 커 보였는데 어느 새 체격도 왜소해 지시고 흰머리가 품성 품성 해지신걸 보면 괜히 마음이 징하다. 그러니 더더욱 내 젊은 날의 분주로 그들의 젊음에 대한 빛을 갖고 싶은 마음뿐이다. 언젠가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을 유행작이is 글은 그 어떤 수식어로 가득 채운 보기 좋은 글이 아니라 진심을 꼭꼭 눌러 닦은 마음의 글이라고 얘기해 주셨다. 그러니 오늘은 부모님께 '당신들의 젊음을 저에게 바쳐주세요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!'라고 전해야겠다.

